

# 서남해 무례꾼 전통의 변화와 지속\*

송기태\*\*

## 〈목 차〉

1. 머리말
2. 서남해지역 무례꾼에 대한 기록
3. 남·녀가 공존하는 서남해 무례꾼의 전통
4. 제주해녀의 진출과 서남해 무례꾼 활동의 변화
5. 마을어장을 공유하는 무례꾼과 어민의 공존방식
6.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서남해지역 무례꾼의 과거 모습을 추적하고, 제주해녀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적응해 온 과정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마을어장에서 무례꾼과 일반 주민들의 관계를 주목하여 현재의 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남해지역에서는 잠수를 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무례꾼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무례질을 하여 ‘무례꾼’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으나, 제주해녀들이 들어 오고 차츰 여성들만 무례질을 하게 되면서 ‘해녀’와 ‘잠수’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제주도 출신이면서 바닷일을 전문으로 하는 포작과 포녀에 대한 언급이 많다. 이들은 배를 타고 유랑하듯이 서남해의 섬과 해안을 떠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되는데, 큰 틀에서 지금의 무례꾼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서남해 무례꾼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으로는 1791년에 기록된 <금당도선유기>를 통해 원도의 평일도 무례꾼들이 전복 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남해지역 무례꾼 전통에서 특징적인 점은 남자무례꾼의 존재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

\* 이 논문은 2014년 5월 22일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이 개최한 섬의 인문학 학술대회 ‘섬, 경제활동의 역동성’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다. 논문의 미흡한 부분과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아 준 토론자와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07).

\*\* 목포대학교

면 서남해 일대에서 남자무레꾼이 존재했고 그들이 여자들과 함께 무레질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자무레꾼의 활동은 40~50여 년 전에 중단되면서 파편화된 기억으로 전해지지만, 서남해 곳곳에서 남자무레꾼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서남해의 주민들은 물과 친숙하여 어려서부터 수영을 하면서 놀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노력을 통해 물속의 무레미역을 채취할 정도의 잠수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무레질을 하는 것과 전문적인 무레꾼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서남해지역에는 전문적인 무레꾼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었고, 무레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이거나 전문적인 무레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에 제주해녀들이 들어오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전문적인 무레꾼들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제주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등장하면서부터 남자무레꾼들은 자연스레 활동을 중단하였고, 여자무레꾼들은 소수화 되어 좀 더 전문화된 직업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남 도서지역의 무레꾼들은 마을어장에서 자연산 해산물을 채취하는 소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어장은 무레꾼과 마을주민이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관계가 존재한다. 해조류의 경우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공동채취 및 분배를 하고, 수중의 해산물은 마을에서 해녀사업자에게 빈매를 한다. 제주도의 경우 해녀들이 마을어장 전반을 관리하고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어로활동을 전담하는데, 서남해에서는 마을에 무레꾼들이 있더라도 빈매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면 부당해보일 수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레꾼과 마을주민이 공존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을어장은 주민들의 공유재산인데, 마을사람 대부분이 무레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무레꾼들의 수익을 보전해주면서 주민들도 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해녀, 무레꾼, 남자무레꾼, 마을어장, 지선어장, 어촌계, 뚝, 주비, 공유자원

## 1. 머리말

서남해 도서지역에서는 잠수를 하여 전복과 해삼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무레꾼 또는 잠질꾼이라고 한다.<sup>1)</sup>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무레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서남해’의 공간적 범주와 ‘무레꾼’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먼저 밝혀둔다. ‘서남해’의 공간적 범주는 신안과 완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서남부 도서해안지역으로서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도의 도서해안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행정구역을 표명하지 않고 ‘서남해’라는 권역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로문화가 해역 단위로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고,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도 서남해를 ‘한반도 서남부권 해역’의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목을 비롯한 본문 전반에서 ‘해녀’ 대신 무레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서남해 일대에서는 20세기 초·중반까지 남자무레꾼이 활동했기 때문에 여자무레꾼을 지칭하는 ‘해녀’라는 용어로는 서남해의 무레꾼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조선후기부터 여자들만 무레질을 전담하고 있어서 ‘해녀’라고 지칭해도 큰 무리가 없으나, 서남해지역은 현재의 전문적인 해녀집단

질을 하여 ‘무레꾼’이나 ‘잠질꾼’<sup>2)</sup>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으나, 여자들만 무레질을 하게 되면서 ‘해녀’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서남해지역 무레꾼 전통에서 특징적인 점은 남자무레꾼의 존재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서남해 일대에서 남자무레꾼이 존재했고 그들이 여자들과 함께 무레질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자무레꾼의 활동은 40~50여년 전에 중단되면서 과편화된 기억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섬에 따라서는 남자무레꾼의 활동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곳도 있고, 남자무레꾼이 있기는 했으나 지금의 해녀들처럼 깊이 잠수를 하지 않았던 지역도 많다.

서남해 일대에서 무레꾼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외해에 위치한 섬들이다. 한국의 서남해는 지형적으로 갯벌과 모래사장, 갯바위가 모두 존재하여 내륙에 가까이 갈수록 갯벌이 발달해있고, 멀리 떨어진 섬일수록 갯바위가 발달해있다. 갯바위지역은 제주도와 동해안, 서남해의 원해 도서지역에 분포하고, 마을어장<sup>3)</sup>에서 해녀들의 어로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갯벌은 연안 지역에 분포해있어 마을어장에서 패류와 해조류를 양식하고, 독살, 개맥이, 죽방렴, 죽목망 등등의 정치망 어업이 발달하였다.

갯바위와 갯벌이라는 자연환경은 어로활동의 기반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데, 가장 쉽게 두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레꾼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갯바위지역은 바닷물이 투명하고 수심이 깊어서 무레꾼이 활동할 수 있는 곳이고, 갯벌지역은 바닷물이 탁하여 무레꾼의 활동이 불가능한 곳이다. 제주도의 경우 갯바위지역으로서 해녀들이 마을어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해녀의 활동이 확인되고 그들의 활동이 어촌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제주도를

---

과 조금 다른 전통 속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무레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제주도 해녀들을 지칭하거나 구술 등의 자료는 그대로 ‘해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잠질꾼이라는 용어는 흑산도 일대에서 주로 사용한다. 고평민, 『흑산군도 사람들의 삶과 도구』(민속원, 2012), 120~121쪽.

3) 한국의 마을어장은 수산업법상 마을어업의 구역에 해당한다. 마을어장은 법적으로 수심 5m(강원·경북·제주는 7m)와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서해안은 1000m)에 이르는 구역이다.

제외한 한반도 일대에도 갯바위가 넓게 발달해있지만, 해녀가 어촌사회의 일반화된 전통으로 전승되지 않았다. 서남해를 비롯한 한반도 일대에서는 무레꾼의 존재가 일부 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갯바위지역 전반에서 잠수를 하는 해녀들은 있지만, 제주도는 해녀가 보편화 된 사회이고 그 외의 지역은 해녀가 특수화 된 사회인 것이다. 제주도 어촌사회에서 해녀와 그들의 잠수 활동은 어촌의 일반적인 전통일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그것이 특수한 활동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녀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해녀를 주목하는 것과 해녀가 특수한 지역에서 해녀를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동안의 해녀 연구는 대부분 제주도의 해녀와 제주출신의 해녀들에 대해 주목해왔다. 해녀가 보편화 된 사회에서 일반적인 해녀를 연구하거나, 그 해녀들이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점을 연구해 온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해녀들을 연구하면서도 연구의 목적과 결과는 제주해녀의 삶을 탐구하는 데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sup>4)</sup>

본고에서는 서남해의 무레꾼에 대해 주목하려고 한다. 서남해 도서지역에는 토착무레꾼이 존재하고 그들이 마을어장에서 지역의 어민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 들어 서남해의 해녀 활동에 대해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2013년에는 홍도에서 신안군 해녀대회를 열기도 하고,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전남지역 해녀실태를 조사하여 보고<sup>5)</sup>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나 여전히 서남해의 무레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서남해의 무레꾼에 대한 연구는 미역채취와 관련된 공동체로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먼저 조정만은<sup>6)</sup> 흑산도의 생업과 민간신앙을 주목하면서 해녀와 뚝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파악하였고, 김창민은<sup>7)</sup> 마을어장을 대표하는 뚝의

4) 좌혜경,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실태와 대응』, 『영주어문』 10(영주어문학회, 2005);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탐라문화』 37(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제21집(부경역사연구소, 2007).

5) 문옥희·이아승·서은정, 『전남지역 해녀실태조사』(전남여성플라자, 2013).

6) 조정만, 『흑산 사람들의 삶과 民間信仰: 生計活動·堂祭·水産儀禮의 現樣相』, 『도서문화』 6(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8).

존재와 미역채취 과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들 연구에 이어서 최근에 이유리<sup>8)</sup>의 연구를 통해 가거도 무래꾼들의 삶과 뚝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무래꾼과 갯발공동체의 관계를 주목함으로써 제주해녀와 다른 서남해 무래꾼의 모습을 처음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다. 다만, 갯발공동체와 무래꾼 조직이 해체된 가거도를 대상으로 함으로 인해 그 실제적 양상을 그려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서남해는 조선시대부터 무래꾼과 관련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래꾼의 활동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서남해 먼바다 섬지역에서는 부녀자들의 절반 이상이 무래꾼이었을 정도로 흔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마을마다 1~2명에서 7~8명밖에 남지 않아 제주해녀나 스쿠버다이버들이 대체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서남해의 무래꾼 활동은 오래된 전통이지만, 제주도처럼 무래꾼들만의 조직이나 의례가 특화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해녀들의 경우 जु머니회나 해녀회가 있어서 독자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자율적인 어로활동을 진행하고, 어로 능력에 따라 상군·중군·하군 등의 등급을 매기고 기도 하며, 해녀들이 바다의 안녕과 풍어를 위해 점수굿을 개최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서남해의 무래꾼들은 독자적인 조직이나 의례 등이 발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활동이 마을어장을 관할하는 뚝이나 어촌계 등의 관할 하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래꾼의 존재감은 잠수어로 할 때만 드러나고 그 외에는 무래꾼의 독자적인 활동이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남해 무래꾼의 정체성과 실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서남해 무래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해녀와의 비교론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남해의 무래꾼 전통을 확인하고, 그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 사적 맥락과

7) 김창민, 『평등이념과 개인의 전략: 흑산도의 바위 미역 채취에 관한 민속지』, 『지방사와 지방문화』 5(1)(2002).

8) 이유리, 『가거도와 만제도의 갯발공동체와 무래꾼 연구』, 『남도민속연구』 26(남도민속학회, 2013); 이유리, 『가거도의 갯발공동체와 무래꾼 연구』(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현재의 어로활동 현황에 대해서 들여다 볼 것이다. 또한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무래꾼의 관계를 주목할 것이다. 무래꾼의 어로활동 구역이 마을어장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서남해는 무래꾼이 일반화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 지선어민과 해녀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서남해지역 무래꾼에 대한 기록

서남해지역 무래꾼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의 鮑作, 鮑女, 潛女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포작과 잠녀에 대한 문헌 고찰이 진행되면서 해녀의 역사적 실체에 접근해가고 있다.<sup>9)</sup> 조선시대 문헌기록 나타나는 鮑作은 어로활동을 전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서 잠수를 하여 전복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어로전문가였다. 포작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조선시대에는 남녀 모두 잠수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포작은 제주를 비롯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지에 존재했고, 왜구와의 전쟁이 벌어질 때면 수군으로 징발되어 참여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과도한 공물과 부역 때문에 포작간(鮑作干)들이 수탈을 피해 육지로 출륙하게 되었다. 그 결과 17세기 말엽에 이르러서는 포작은 사라지고 해녀만 남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지역별 포작은 제주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조선 후기 제주지역 포작을 주목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선후기 전라도와 경상도 등지에서 활동하는 포작인들은 대개 제주에서 도망친 자들로, 도서연안지역에 정착하며 고기를 잡거나 잠수를 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0)</sup> 남해안 일대의 포작과 관련된 기록들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역사민속학회, 2004);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탐라문화』 32(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김수희,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 『탐라문화』 33(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10) 김나영, 「조선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탐라문화』 32(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가) “이 무리들은 모두 제주(濟州)에서 도망해 왔으므로, 지금 비록 본토로 돌려 보낸다 하여도 반드시 즐거이 따르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소재처(所在處)에서 문적(文籍)에 기록하여 존무(存撫) 해서, 유이(流移)하지 못하게 하소서.”<sup>11)</sup>

나) “...(중략)... 제주(濟州)의 포작인(鮑作人)으로 전라(全羅) 연변(沿邊)의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산 자들이 자못 많은데, 이 무리들은 왕래(往來)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전에 해적(海賊)을 만나는 일이 있으면, 본도(本道)의 사람들이 모두 이 무리들을 의심하였습니다.”<sup>12)</sup>

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형조의 공사(公事)를 보건대, 제주(濟州)의 포작인(鮑作人)들의 일은 지극히 염려스럽다.” 【제주 포작인 김유월(金六月) 등 남녀 74명이 전라도 흥덕(興德) 지방에 이사하여 살면서 본토로 쇄환(刷還)되는 것을 싫어하여, 압송(押送)하는 색리(色吏)를 공갈하며 배반하였다.】 하매,

자견이 아뢰기를, “추자도(楸子島) 근처에 도서(島嶼)가 많은데 포작인들이 모여 해적 노릇을 하니 찾아서 쇄환(刷還)하고 수색하여 토벌함이 어떠하리까?”<sup>13)</sup>

라) “해남(海南)의 인민(人民) 등이 본사(本司)에 정장(呈狀)하기를, 대략 8~9년 사이에 포작인(鮑作人) 19명 등이 우연히 본현(本縣)에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마침 부당한 소송을 하게 되어 장예원(掌隸院)에서는 홍문관의 노비로 속궁(贖公)하였습니다. 이들 노비들은 배를 주거(住居)로 삼으므로 온 곳도 알 수 없고 또 그 일족도 없습니다. 이들은 신역(身役)을 싫어하여 배를 타고 도주하였으니 종적을 알 수 없습니다.”<sup>14)</sup>

11) 『성종실록』 178권, 성종 16년(1485년) 윤4월 19일 2번째 기사. <http://www.koreanhistory.or.kr>

12) 『성종실록』 246권, 성종 21년(1490년) 10월 24일 기사. <http://www.koreanhistory.or.kr>

13) 『중종실록』 44권, 중종 17년(1522년) 5월 28일 기사. <http://www.koreanhistory.or.kr>

14) 『비변사등록』 1책, 광해군 9년(1617년) 05월 11일 기사. <http://www.koreanhistory.or.kr>

가) 1485년(성종 16년) 기록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연해지역 고을의 포작인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 모두가 제주에서 도망 나온 자들로 확인된다. 나) 1490년(성종 21년) 기록은 제주 출신의 포작인들이 전라도 연해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고, 포작인들은 해적처럼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말해준다. 다) 1522년(중종 17년) 기록은 제주의 포작인들이 집단적으로 전라도 흥덕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당시 추자도 인근 도서지역에 포작인들이 집결하여 해적노릇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라) 1617년(광해군 9년) 기록에는 해남에 정착한 포작인들을 홍문관의 노비로 하였는데, 이들은 배를 주거로 사용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이었으므로 파악된다.

장흥의 위백규(魏伯珪, 1727~1798)의 문집 ‘금당도선유기’에는 평일도 무레꾼의 활동이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마) 순풍이 불자 배를 띄워 平伊島에 이르렀다. 온 포구에서 海女들이 전복 따는 것을 구경했다. 그녀들이 벌거벗은 몸(裸身)을 박 하나에 의지하고 깊은 물속을 자맥질(倒入)했다. 마치 개구리가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물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쳐 나오는 형상이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여름철이 되어 날시가 맑고 화창한데도 오히려 불을 피워 언목을 녹히는데, 하물며 눈이 쌓이고 몹시 추운데도 관리들은 채취를 독촉하며 채찍질로 유혈이 낭자한데서야.<sup>15)</sup>

장흥의 위백규는 1791년 전남 완도의 평일도를 찾아 무레꾼들이 전복 따는 것을 구경하고, 그들을 ‘海女’라고 기록하였다. 220여 년 전 평일도 무레꾼들이 두레박을 띄워놓고 무레질을 하는 모습은 지금의 해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을 피워서 언 몸을 녹이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과 같다. 관리들이 채취를 독촉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제주해녀들처럼

15) 위백규, 『존재전서』(고광민, 『平日島 “무레꾼”(海女)들의 組織과 技術』, 『도섬문화』 10(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1992) 재인용).



진상역에 동원되었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내용을 종합하면 전라도나 경상도 일대의 포작인들은 대부분 제주에서 출륙한 자들이는데, 이들은 무리를 이루어 다니고 배를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방랑을 하며 해적으로 변하여 노략질을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포작인은 주로 남자 어로전문가를 지칭하고, 포녀나 잠녀 등은 잠수를 할 수 있는 여인을 지칭하기 때문에 지금의 해녀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다. 또한 제주의 포작이 17세기 말엽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해 그 역할을 해녀(포녀)가 짊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서남해의 해녀 전통과 포작의 관계를 쉽게 대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포작이 잠녀를 아내나 첩으로 삼아 협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었고, 둘이 가족을 이루거나 부부로 묘사하는 기록이 많기<sup>16)</sup> 때문에 서남해안의 포작 또한 해녀의 전통 속에서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 흑산도의 경우 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김약행(金若行, 1718~1788)이 1770년 2월 흑산도를 유람하면서 “포녀가 입해(入海)하여 전복을 채취하려했으나 물이 차가워 불가능했다.”<sup>17)</sup>는 기록이 전한다. 흑산도에서 전복은 잠수해서 잡기도 하고 해안가에서 전복쪽바지로 굽어서 잡기도 하는데,<sup>18)</sup> 포녀가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보아 당시에 무래꾼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남·녀가 공존하는 서남해 무래꾼의 전통

서남해지역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남자무래꾼이 활동하였다. 그동안 서남해 일대의 남자무래꾼에 대해 전설처럼 회자되긴 했으나, 그 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그 이유는 남자무래꾼들의 활동이 20세기 중

16)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역사민속학회, 2004), 146~148쪽.

17) 金若行, 『仙華遺稿』(牧民, 2005), 279쪽. “浦女入海採鰓而水寒不可”

18) 고평민, 『흑산군도 사람들의 삶과 도구』(민속원, 2012), 142쪽.

반이후 중단되었고, 무례꾼 연구가 제주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조사를 통해 서남해 일대에서 남자무례꾼이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완도군 금일읍 평일도에서 남자무례꾼의 활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평일도는 장흥 위백규의 <금당도 선유기>에서 해녀의 활동이 기록된 곳이면서 현제도 지역의 무례꾼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완도군 동부지역에서 중심적인 권역을 차지하고 있는 섬으로서, 평일도를 포함한 부속도서를 포함해 현재 27개마을 39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평일도 동백리는 2012년 현재 183가구 369명이 거주하고 있는 큰 마을로 과거에는 230여가구에 1000여명이 넘게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르신은 무례꾼들을 남자들도 무례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남자들 다 했어요. 우무, 전복도 잡고. 나도 했지. 무례를 했어. 거기 뭐야 툃도 하고 인자 빠죽(소리)도 하고. 전복 잡았제. 전복도 잡아 자연산. 남자가 많았어. 나도 한 20살 넘어서 했제. 얼마 하도 안했어. 한 오년 했던가.

(무례꾼이 같이 남자랑 여자랑 같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다섯인가. 한 배로 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야기하고 놀기도 하고. 여자들이랑 같이 땡졌제. 여자는 서이 남자들이 여덟. 어쨌 때는 여자들이 많고 어쨌 때는 남자들이 많고. (추우면) 나와서 인자 불을 피제.

뽕쌔만 입고 했제. 이 옷 요런 고무복이 없었어. 잠수복. (지금 하는 것처럼 두툼박 차고 망이랑 띄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예 두툼박 있으면 그 밑에는 망이 있제. 빈창은 내가 안 들어봤어. 인자 낮 들고. 가서 내가 그런걸 할란다 그러면 갖고 들어간디 여기는 주로 우무. 그란게 빈손으로 장갑 끼고 뜯고. 몇 미터는 모른데 우리가 상당히 깊이 들어갔어.<sup>19)</sup>

---

19) 2014년 9월 4일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유영준(남, 84세, 1930년생) 씨 면담.

평ildo 동백리에서는 현재 70대~80대 노인들이 20살 중반까지 남자무레꾼으로 활동하였다.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무레질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평ildo에서 무레꾼과 관련해 특징적인 점은, 평ildo 태생의 해녀들은 대부분 동백리에만 거주하고 있는 점이다. 1992년 고광민의 조사에 따르면 평ildo에서 활동하는 해녀들은 총 30명인데, 그 중에서 제주해녀 12명은 네 개의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18명의 평ildo 해녀는 동백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 9월 필자의 조사에서는 동백리에 12명, 옆마을 사동리에 5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동백리에서 무레꾼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았고, 성별에 따른 역할이나 능력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잠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 상관 없이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우뚝가사리, 미역, 전복, 소라 등을 채취했다. 당시에는 고무옷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제주도의 물소중이와 비슷한 옷을 입었고, 남자들은 아래에 속옷만 착용하였다. 무레질의 능력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남자들이 상당히 깊이까지 들어가서 잠수했다는 언급으로 볼 때, 잠수 능력도 여자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흑산군도 일대에서 파악한 ‘남자 무레꾼’의 활동에 대해서도 파악해본다. 흑산군도에서는 흑산면 읍동마을, 가거도, 태도 등지에서 남자 무레꾼들이 활동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홍도에서 만난 제보자는 젊어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흑산군도 일대를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기억에 의하면 흑산면 흑산도 읍동마을, 흑산면 태도, 흑산면 가거도 등지에서 남자 무레꾼들이 활동했다고 한다. 1950~60년대 무렵까지 남자들이 아래 속옷만 입고 수경을 쓰고서 잠수를 하였는데, 그들의 잠수형태가 여자무레꾼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홍도는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여자들이 해녀를. 그런데 흑산도에는 남자들이 하고 가거들도 그라고, 가거들도 내가 58년도에 가거도에 갔는데 58년도 59년도, 팬티만 입고, 웅 수경 조그마한 거 있죠. 지금은 큰 거. 그것이 수경이 전부 우리 한국에서 만든게 아니라 일본에서 유입된 거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수경이라고는 없어. (가거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수경 쓰고, 빈창 들고, 팬티입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때는 남이라는 개념이 없었지. 남이라고 하는 것은 고무옷에 차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 사십 몇 년 그렇게밖에 안됐어요.<sup>20)</sup>

흑산군도에서는 남자 무레꾼을 실제로 만나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봉채질’이라고 하는 남자들의 무레질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봉채질은 ‘남자 무레꾼이 잠수를 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그 명칭에 대한 유래가 전한다.

우리 흑산은 원래 여자들이 하는게 아니라 남자가 했었어요. 남자가 했는데 그 남자 중에서 흑산 읍동이란 데가 있어요. 진리2구 읍동에 봉채 씨가 계셨어요. 남자 해남일을 주로 ‘봉채한다’, ‘봉채질한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에 제일 무레질을, 처음에 남자를 해가지고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분 이름을 따서 남자들이 해남일을, 남자들이 무레질 하면은 ‘봉채질한다’ 그러거든요. 흑산면에는 다 씨. 옛날 조도 만제도 거기도 생활권은 이쪽 생활권이었어. 그렇게 전부 “봉채질하네?” 가면서. 남자들이 수경 쓰고 뭐하면, “저놈 봉채질하네.” 어른들이. 우리들이 하면, “어, 저놈! 봉채질하네. 잘한다. 잡았으면 좀 내놔라.” 하면 갖다드리고 하고.<sup>21)</sup>

봉채질이라는 명칭은 흑산도 읍동마을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신안군 흑산면 읍동마을에 ‘봉채’라는 남자 무레꾼이 살았는데, 그가 무레질을 잘해서 남자의 무레질을 ‘봉채질’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20) 2014년 10월 16일 전남 신안군 홍도 2구 이동석 씨(남, 77세, 1938년생) 씨 면담.

21) 2014년 10월 16일 전남 신안군 홍도 2구 이동석 씨(남, 77세, 1938년생) 씨 면담.

부터 남자들이 수경을 쓰고 잠수를 하면 으레 ‘봉채질 한다’라고 표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봉채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봉채질’이라는 용어는 홍도를 비롯한 흑산군도 일대에서 통용되고 있고, 흑산도 읍동마을에서는 전문적인 남자 무레꾼들의 활동이 존재했다고 한다.

완도 평일도와 흑산군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서남해 일대에서 남자무레꾼이 존재했음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그들의 활동은 볼 수 없지만, 적어도 1950~60년대까지는 남자무레꾼들이 여자무레꾼들과 함께 무레질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자무레꾼의 활동이 서남해 전역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자무레꾼의 존재는 결코 특별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남자무레꾼이 활동하던 지역에서는 남자나 여자 모두 능력만 갖추면 누구나 무레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 4. 제주해녀의 진출과 서남해 무레꾼 활동의 변화

##### 1) 서남해 무레질의 두 측면 ‘미역잠질’, ‘전복잠질’

서남해에서 ‘무레꾼’이라는 직업을 갖는 것과 ‘무레질(잠질)’을 하는 것은 달리 인식되었다. 서남해에서는 잠수를 하는 사람을 ‘무레꾼’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잠수하여 어로활동을 하는 것을 ‘무레질(잠질)’이라고 하는데, 이 무레질은 ‘미역잠질’과 ‘전복잠질’로 구분된다. 미역잠질은 서너발 정도 잠수를 하여 미역을 채취하는 것이고, 전복잠질은 최소 대여섯 발 이상 잠수하여 전복을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흑산군도에서는 전복잠질을 하는 무레꾼을 ‘해녀’로 인식하고 있다.

가) (할머니들은 예전에 해녀 물질을 다 하셨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도 못했어요. 미역 같은 것은 따러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나이 먹어지니까 그것도 안 해요. 미역은 전복 잡는 것 같이 두툼박 타고 해녀복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미역을 따지요. 낮으로 비어서 망서리에 담아서 하는 거여. 지금은 그것도 나이 먹은게 안 해요. (그럼 전복 딸 정도는 안 돼도 미역 딸 정도는 다 할 줄 알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태어날 때부터 흑산에 사는 사람은 미역잡질은 그걸로 먹고살고 하니까. 그것 안 하든 큰일 낄줄 알고, 흑산도에는 논이 없으니까. (그럼 미역잡질과 전복잡질을 따로 불러요?) 그러지요. 미역은 얕찬 데가 있고 전복은 깊이 있으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죠. (미역 자무질을 1~2m 들어가요?) 한 세 발도 들어가고, 두 발 들어간 데도 있고, 세네 발 들어간 데도 있고 미역은. 물이 빠지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전복은 그렇지 않고 보통 몇 발씩 들어가서 따니까.<sup>22)</sup>

나) 여기 홍도는 그런건 없고, 애당치 않고 흑산도에만 그렇게 있었고, 홍도는 남자들이 물질을 해도 같이 땡기는 해도 그렇게 크게 안하고 이 중간에 여자들이 좀 힘들고 그러면 남자들이 부축해서 낮은데 3m 미만 하는데, 10미터 8미터는 남자들이 안하고 여자들이. (남자들은) 낮은데서, 간단히 이렇게 조금 해갓고 이렇게 하고 뭐. 이 물이 여기서 목에 차면은 목말이라 하거든요. 목까지 인자 차는 물을 목말이라 그러는데 그 정도 부분에서 남자는 주로 했죠. 좀 깊이하는 사람은 4미터 정도에서 하고.

(봉채질 하는 그런 일들은 옛날부터 남자 여자가, 그 정도는 다 했다고 봐야 되죠?) 다했죠. 여자도 남자도 (그것도 무레질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레질 한다고 볼 수가 없지. 무레질 한다는 것은 해녀들이 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물속에 들어가갓고 전부 몸이 담겨갓고 물속에서 작업하는 것을 무레질이라 하지 위에서 이렇게 하고 거시기 그런 것은 무레질이라 볼수가 없지요. (봉채질 하는 것을 남자 무레꾼이라고 할 순 없었겠네?) 그래도 깊이 한사람들은 무레꾼이라 했죠.<sup>23)</sup>

22) 2014년 5월 7일 신안군 흑산면 심리 안정아(여, 66세) 씨, 천촌리 황길자(여, 65세)씨 면담.

23) 2014년 10월 16일 전남 신안군 홍도 2구 이동석 씨(남, 77세, 1938년생) 씨 면담.

가)의 구술을 통해 미역무레질과 전복무레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 보자는 해녀일은 하지 않았지만 무레질은 했다고 한다. 미역을 따기 위해 서너 발 정도 무레질을 했지만, 전복을 딸 정도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흑산도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역잠질 정도는 할 줄 알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흑산도 사람들이 미역잠질과 전복잠질을 구분하고 있고, 해녀는 전복잠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남자 무레질을 지칭하는 ‘봉채질’과 남녀의 무레질 차이에 대한 구술이다. 앞에서 소개한 흑산군도의 ‘봉채질’도 남자무레꾼과 동일시되는 개념은 아니다. 봉채질의 유래를 ‘남자이면서 무레질을 잘했던 봉채라는 인물’에서 찾고 있지만, 현재 ‘봉채질’이라는 용어는 전문적인 남자무레꾼의 무레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봉채질은 수심 깊이 잠수하는 전문적인 무레질 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속의 해조류나 패류를 채취하는 것을 포괄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남자들의 봉채질도 그 능력에 따라 미역잠질과 전복잠질로 구분하고, 전복잠질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무레꾼이라고 한다.

서남해에서 미역잠질이 존재하는 것은 미역의 서식과 채취방식 때문이다. 서남해지역에서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미역을 서식위치에 따라 날미역과 무레미역으로 구분한다.<sup>24)</sup> 날미역은 썰물 때 미역의 뿌리나 줄기가 햇볕에 노출되는 것으로서 물 밖으로 드러난 미역이라는 의미로 ‘날미역’이라 하고, 무레미역은 밀물과 썰물에 상관없이 물속에 잠겨있어서 무레질을 통해서만 수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무레미역’이라고 한다.

미역철에 물속에 있는 무레미역을 채취할 경우 남자들도 무레미역을 채취하는 데 참여하였다. 홍도처럼 남자무레꾼이 없는 곳에서도 남자들이 무레질

24) 이유리, 「가거도와 만재도의 갯벌공동체와 무레꾼 연구」, 『남도민속연구』 26(남도민속학회, 2013); 고광민, 「한국어촌사회 공유지의 소유구조」, 『한국 어촌사회 공유자원』(인천학연구원, 2011), 100~109쪽; 송기태, 「어경(漁耕)의 시대, 바다 경작의 단계와 전망」, 『민속연구』 제25집(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2); 송기태, 「조도군도 관매도의 미역밭 경작과 생업전략」, 『남도민속연구』 26(남도민속학회, 2013).



〈사진 1〉 만재도 무례꾼의 미역잡질



〈사진 2〉 홍도 무례꾼들의 전복잡질

을 하면 ‘봉채질 한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들의 봉채질은 대개 3m 미만의 수심에서 여자무례꾼들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무례질을 나가면 남자들이 사공으로 참여하고 여자들이 잠수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가 혹시 여자들을 보조해야할 경우 일을 거들기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정도였다.

서남해에서 일반적인 무례질로 인식되는 ‘미역잡질’은 조선시대 채곽잠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제주도 잠녀를 설명하는 이익태(李益泰)의 『지영록(知瀛錄)』에서 진상 추인복을 잡는 채복잠녀(採鰵潛女)와 진상역 없이 미역을 따는 채곽잠녀(採藿潛女)가 구분되어 있는데,<sup>25)</sup> 여기서 설명하는 채곽잠녀가 흑산도 미역무례질 해녀들의 모습과 기능적으로 흡사하기 때문이다. 제주해녀들의 경우 포작이 사라지고 진상역을 해녀들이 떠맡으면서 전복 등을 채취하는 전문 잠수가로 발달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sup>26)</sup>

이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례질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무례꾼과 일반 마을사람 또한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구술자료에 드러나듯 서남해 도서지역에서는 바다와 접해있기 때문에 누구나 수영을

25) 김수희,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 『탐라문화』 33(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2008), 121쪽.

26) 문현상의 채곽잠녀와 흑산군도의 미역무례질 무례꾼의 관계는 추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에서 갈무리한다.



할 줄 알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잠수를 익히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잠수를 하는 것과 무레꾼이 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조금만 노력해서 되는 정도는 미역잡질 정도였고, 전복을 채취하는 무레꾼이 되기 위해서는 깊이 잠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결국 무레꾼과 일반주민의 차이는 전복잡질을 기준으로 획정되어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 2) 제주해녀의 진출과 다도해 무레꾼 전통의 변화

서남해지역 무레질 전통은 제주해녀의 등장과 함께 많은 변동에 처한다. 19세기 말부터 제주해녀들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일대로 진출하면서 서남해 도서지역도 제주해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제주해녀들이 섬을 떠나 활동하는 것을 ‘바깥물질’ 또는 ‘출가물질’이라고 하는데, 20세기 초 출가물질은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르렀다.<sup>27)</sup> 한반도에서는 경상도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도해지역으로 진출했다. 제주해녀들의 진출은 1921년 조선총독부에 의한 어업령의 공포로 합법적인 활동이 되었으나 현지인들과 지속적인 마찰을 겪어야만 했다.<sup>28)</sup>

가) 해마다 제주해녀들이 습래하여 절해고도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 흑산도민 사할문제. 절해고도인 전남 무안군 흑산도 주민이 제주해녀의 침습으로 생계를 일케 되었다함은 기묘한바어니와 흑산면 태상도 주민대표 리양백, 김태현 양씨는 주민 오십칠명의 련명으로 십칠일 오전에 조선총독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태상도와 태중도 주민 사백여명은 순전히 바다 속에서 채취되는 천초로 겨우 호구하여야하는데 제주도 해녀가 일본 사람의 발기로 해녀조합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것을 빙자하여 해마다 흑산도를 침습하여 도민이 채취하든 해산

27) 김영돈, 『한국의 해녀』(민속원, 1999), 383~391쪽.

28)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제21집 (부경역사연구소, 2007).

물을 모조리 캐어감으로 여러번 분쟁이 일어났으나 림장하는 경비선은 돌이여 조합측을 옹호함으로 호소할 길이업서 총독부에 진정하는 것이라더라.<sup>29)</sup>

나) 그 당시에는 해녀들도 없고 해서 전복을 채취할 능력이 없었다. (언제부터 해녀들이 채취하기 시작했나요?) 여기서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30년 정도 될 거예요. 제주에서 해녀를 모셔다가 한 것은 일제 때부터니까 60년 정도 됐습니다. 흑산도에 왜정 때 흑산 읍동이라는 곳에다가 제주해녀를 모셔다가 전복을 많이 잡기 시작했어. 그래서 알았지. 그전에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 전복을 잡는다는 것은 없는 일이었어요. …(중략)… 옛날 구석에는 뚝 내에서 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적으로 해녀들같이 갇히는 못가도 서 말 내지 너 말 이렇게 하는 해녀들도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서 해요. 그렇게 하면 그때도 잠수했다고 해서 줘요.”<sup>30)</sup>

다) 이 해녀가 흑산도에 들어오게 되면은 왜정시대에 太陽丸 일본배가 그 배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루 자고, 가거도 홍도 흑산도 해서 목포 들어가고. 그렇게 항해를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마침 홍도 분들이 제주도를 거쳐서 오게 됐어요. 홍도 분들이 ‘아! 이걸 안되겠다. 우리 홍도에 물산이 많은데 해녀를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오시는데 그 한 분은 조씨고 한 분은 인자 잊어버렸네. 그런데 그 여자 분들이 두 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해녀들이 오셨는데 그 침에 오신 분들은 김새환 씨라고 둘째 부인 와갖고 거그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살아계시면 150살 그 정도 되지요. 한 20대에 왔은게 하이튼 100년은 넘어요. 그렇게 시작했지요. 그래가지고 해녀라는 것이 발전이 되고 홍도는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로 여자들이 해녀를.<sup>31)</sup>

29) 『동아일보』, 1928년 5월 19일자 기사. ‘濟州海女襲來로 總督府에 陳情’

30) 전재경, 『어촌사회의 법의식』(한국법제연구원, 1998), 115~116쪽.

31) 2014년 10월 16일 전남 신안군 홍도 2구 이동석 씨(남, 77세, 1938년생) 씨 면담.

가)는 1928년 신문기사다. 제주해녀들이 수년에 걸쳐 신안군 흑산면 태도 일대로 진출하여 무례질을 함으로 인해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것을 진정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제주해녀들이 현지주민들의 허락 없이 들어와 해산물을 채취하였는데, 정부의 경비선이 해녀들을 옹호했다고 한다. 이것은 1920년 제주해녀들이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을 설립한 이후의 분쟁 상황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로 진출한 해녀들은 1920년 이전에는 입어를 할 때 관련해 현지주민들과 계약을 하거나 양해를 얻어서 입어했다. 그러다가 어업령에 따라 1920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을 설립하면서부터 현지인들과 관계하지 않고 해녀조합에서 해산물을 위판할 수 있게 되었다.<sup>32)</sup> 이 무렵에 경남지역에서도 <경남어업조합>과 참여하게 대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흑산군도에서도 당시 <제주도해녀어업조합>과 마찰을 빚던 상황으로 추정된다.

나)는 1998년 7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제보자는 흑산도나 다물도 일대는 전복을 채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 제주해녀들이 흑산도 읍동으로 와서 전복을 채취하는 걸 본 후 잠수를 하여 전복을 채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전복을 채취할 수는 없었지만, 기존부터 서너 발 정도 무례질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다. 즉 흑산군도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전복을 채취할 정도의 무례꾼은 없었으나 제주해녀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더 깊이 잠수하기 시작해 전복을 채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 제주해녀들이 들어오게 된 정황을 말해주는 구술이다. 홍도의 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주해녀들을 홍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점이다. 구술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가거도를 거쳐 홍도로 들어오는 여객선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홍도 주민들이 제주도를 오가면서 해녀들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제주해녀들

32)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제21집 (부경역사연구소, 2007).

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 들어왔던 해녀들 중에 4명이 마을주민과 결혼하여 정착하였는데, 살아있으면 150세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제주해녀들이 100여 년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해녀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40~50여 년 전부터는 제주해녀들이 없이 홍도의 주민들로 구성된 토착해녀들만 활동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20세기 초부터 서남해 일대에서 제주해녀들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무례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제주해녀들의 진출 이후 마을의 무례꾼 전통이 형성된 것으로 구술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제주해녀의 진출이 서남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충격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계기로 무례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 점이다.

제주해녀들이 서남해로 진출할 당시 지역의 주민들은 전복을 전문적으로 채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제주도와 전라도를 비롯한 전국의 해안에서 전복을 토산품으로 진상하였기<sup>33)</sup> 때문에 반드시 전문적인 무례꾼이 필요했겠지만, 제주해녀가 진출하는 20세기 초에는 전문적인 무례꾼 활동이 미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도의 주민들이 “우리 홍도에 물산이 많은데 해녀를 해야겠다.”라는 자각이나, 흑산군도에서 “일제 때 제주해녀가 들어오면서부터 전복을 채취했다.”는 구술 등은 다도해 일대에서 전문적 무례꾼이 많지 않았고,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제주해녀들의 영향은 지속적인 기술 전파로 이어졌다. 그들은 동아시아 일대로 진출하여 무례질을 하였고, 일본의 어로장비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존재였으며, 이를 다도해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

33) 강영삼, 『조선시대 전복(全鰓) 진상 연구』(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라) 제주해녀 처음 온 해가 40~50년 됐었는데, 제주해녀들 같이 했는데도 생산량이 달라. 우리는 작개라고 이렇게 천으로 만든 거 그거 입고, 머리도 이렇게 까부리라고 천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제주해녀들은 그때부터 시커먼 고무옷 그거를 입고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방해녀들이 자동으로 밀려갔고 못해. 안 해버린 거지. 나는 결혼해갖고 판권 산 사람이 고무옷 입고 해보라고 줬는데 멀미 때문에 못 입었드만. 그래서 그거 입으면 막 토하고 그러니까 안 해버렸어. 그게 한 35년 전. 여그 해녀들도 다 그때부터 사다 입은 거여.<sup>34)</sup>

마) 제주 해녀들 오면 옷이 있거든. 남자들 옷 없고 뺄스만 입고 들어간디 추워서 못해. (고무옷) 우리는 안 입어봤어. (어르신 무례꾼 그만할 때 마을 사람 남자들도 거의 안했겠네요?) 거의 안했제 다. 자연적이자니 그 잠수복이 있제. 잠수복. 고것 이 전부 해녀들은 입고 나와서 안 춥거든. 근데 우리들은 뺄스만 입고 들어가면 추와. 그래서 우리들은 오래 못하고 그분들이 해본게 우리는 말아브렸어. 자연적으로 안하게 됐다는게 맞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들이 우리들도 옛날에 했습니다만 목욕하듯이 했는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인내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누가 하라마라 안하고 끊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없어져버렸어요 남자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없어졌다는게 맞네요.<sup>35)</sup>

라)는 흑산도 무례꾼과 제주해녀의 차이를 말해주는 구술이다. 흑산도에서는 제주해녀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고무옷을 입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부족함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제주해녀들 고무옷을 입는 것을 보고 흑산도에서도 고무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는 완도군 평일도에는 지역의 무례꾼들과 제주도 해녀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별도의 경쟁체제라기 보다 해녀배사업 업자가 마을과 계약을 통해 채취권을 획득하고 해녀들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무례꾼들과 제주해

34) 2014년 5월 7일 신안군 흑산면 심리 안정아(여, 66세) 씨, 천촌리 황길자(여, 65세) 씨 면담.

35) 2014년 9월 4일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유영준(남, 84세, 1930년생) 씨 면담.

너가 함께 공존하였다. 그런데 제주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등장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제주해녀들로부터 들어온 고무옷은 여자무래꾼이나 남자무래꾼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고무옷의 등장은 남자무래꾼이 무래질을 그만 두게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고무옷은 1970년대 초반 일본에서 제주도로 도입되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6)</sup> 고무옷을 입으면 웬만한 추위에도 작업이 가능해서 12월에도 잠수를 할 수 있고 생산량과 소득이 5배 정도 늘어난다.<sup>37)</sup> 따라서 1970년대 제주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평일도에 등장하면서 지역의 무래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의 무래꾼들은 속옷만 입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몇 번 입수하지 않아도 추워서 몸을 녹여야 하는데, 고무옷을 입은 제주해녀들은 오랫동안 물속에서 작업을 해도 추위를 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생산량도 비할 바 없이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고무옷의 등장으로 남자무래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대부분 무래질을 그만 둔 것으로 파악된다. 평일도의 남자무래꾼은 제주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들어온 이후부터 자연스레 무래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고무옷이 들어오고 나서 해녀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지만<sup>38)</sup>, 서남해에서는 특별한 분쟁이나 대응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남자무래꾼들과 달리 여자무래꾼들에게 고무옷은 좀 더 전문화 된 잠수가로서 활동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 같다. 고무옷뿐만 아니라 수경과 오리발 등등 잠수와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제주해녀들로부터 장비를 들여왔는데, 고무옷이 들어오면서부터 누구나 무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래꾼은 당연히 고무옷을 입게 된 시대가 되었다. 기존에는 잠수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무래꾼으로 참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 고무옷을 입고 전문 잠수가로서 활동하

36) 강권용·권미선, 『제주 해녀옷 이야기』(해녀박물관, 2012), 30~34쪽; 제주도, 『제주의 해녀』(1997), 170~171쪽.

37)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의 민속』Ⅳ (의생활·식생활·주생활)(제주도, 1993), 116쪽.

38) 강권용·권미선, 앞의 책(2012), 30~35쪽.

는 이들이 무래꾼이 된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제주해녀의 진출은 크게 두 차례의 사회문화적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1차적으로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제주해녀들과 지역 무래꾼들이 접촉하게 되었고, 이때를 계기로 상업적 목적으로 수중의 해산물을 채취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세기까지 전국적으로 전복을 진상하였기 때문에 서남해에도 전문적인 무래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20세기 초반에는 전복을 전문적으로 채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술에 따르면 서남해 무래꾼들은 수중에 서식하는 미역을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전복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20세기 초·중반 서남해 무래꾼들에게 ‘무래질을 해서 전복을 채취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주해녀들이 들어왔을 때 제주해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읽혀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흑산면 태도에서 총독부에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를 거치면서 무래질 기술이 진보하게 되었던 것은 명확한 것 같다.

2차적으로는 고무옷으로 상징되는 잠수장비의 도입으로 전문적인 무래꾼과 일반 주민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흑산도에서 해녀배 업자가 고무옷을 주면서 무래꾼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던 점은 ‘이제 무래꾼은 고무옷을 입고 전문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제주해녀들과 접촉하면서 전문적인 무래질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소수정예의 전문 무래꾼이 고무옷이라는 전문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평일도에서 남자무래꾼들이 고무옷 때문에 소멸한 것은, 그것이 전문잠수가로서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5. 마을어장을 공유하는 무례꾼과 어민의 공유방식

### 1) 서남해 무례꾼의 현황과 활동

현재의 전남지역 무례꾼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신안군, 완도군, 여수시, 고흥군 등에 해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1) 참조). 지역마다 무례꾼의 수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지리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 시군별 통계자료 중에서 면단위의 집중도를 살펴보면, 신안군의 흑산면과 여수시의 삼산면, 완도군의 청산면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안군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섬이 많은 지역이지만, 먼 바다에 위치한 흑산면 일대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세 지역은 서남해에서도 먼 바다 쪽에 위치해 있어서 비교적 물이 맑고 해안이 갯바위로 형성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표 1〉 전남지역 해녀 현황(2014년 시군 해양수산물 제공)

시군	신안군		완도군		여수시		고흥군	
	읍면동	해녀 수	읍면동	해녀 수	읍면동	해녀 수	읍면동	해녀 수
읍면/수	흑산면	91	완도읍	10	돌산읍	11	도양읍	10
	도초면	6	금일읍	17	남면	25	금산면	3
			신지면	12	삼산면	107		
			약산면	1	중화동	21		
			청산면	37	고소동	12		
			소안면	6	기타	31		
			생일면	8				
	소계	97	소계	91	소계	207	소계	13
총 계	전남지역 해녀 수 = 408명 *완도군의 경우 노화, 군외, 보길, 금당, 고금 등 5개 지역은 파악 안됨							

전남의 무례꾼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전남여성플라자의 무례꾼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바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여수, 완도, 신안, 고흥지역에 354



명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60대가 49.5%, 50대가 33.3%, 70대가 13%로 고령화된 상태로 파악된다. 전남여성플라자에서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출신지 비율은 제주도인 경우가 44.3%로 가장 높았고 신안군 27.4%, 여수시 21.7%, 완도군과 기타는 각각 2.8%로 나타난다.<sup>39)</sup>

마을어장은 해안가에서 해조류와 패류가 자라는 ‘밭’으로 인식되곤 한다. 해안가와 갯벌을 통틀어 ‘바다밭’, ‘갯밭’이라고도 하고, 채취하거나 수확하는 품종에 따라 ‘미역밭’, ‘톳밭’, ‘전복밭’ 등으로 부른다. 마을어장이 밭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은 해조류나 패류가 농작물처럼 제자리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미역이나 김, 톳 등등의 해조류는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 성장하고, 전복이나 소라 등의 패류도 이동거리가 짧아서 어디어디는 ‘○○밭’으로 고정화 되어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어촌 사람들이 해안가를 ‘밭’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이유는 육지의 경작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sup>40)</sup>

마을어장에서 해조류의 관리와 채취는 뜰이나 주비라고 불리우는 채취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전복이나 해삼 등은 마을이나 어촌계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서남해의 마을어장에서 채취하는 품종은 해조류 중에 김, 파래, 톳, 미역, 다시마, 우뚝가사리 등이 있고, 수중의 어패류로 해삼, 성게, 전복이 있다. 흑산도의 사례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흑산도 비리 마을어장의 어로활동

품종	어로시기	어로주체	어장구역	어로방법	분배	물때
김	12월~5월	마을주민	뜰	공동	공동 후 개인	사리
파래	11월~5월	마을주민	자유	개별	개인	사리
톳	6월~7월	마을주민	뜰	공동	공동	사리
미역	7월~8월	마을주민+해녀	뜰	공동	공동	사리/조금
다시마	9월	마을주민+해녀	특정지역	공동	공동	사리/조금

39) 문옥희 · 이아승 · 서은정, 『전남지역 해녀실태조사』(전남여성플라자, 2013).

40) 송기태, 『어경(漁耕)의 시대, 바다 경작의 단계와 전망』, 『민속연구』 25(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2).

우뭇가사리	연중	해녀	자유	개별	개인	사리
해삼	8월	해녀	통합	잠수	개별 정산	조금
성게	5월~6월	해녀	통합	잠수	개별 정산	조금
전복	5월~12월	해녀	통합	잠수	개별 정산	조금

김은 동짓달 첫 사리 때에 뚝별로 마을사람들이 일제히 채취를 시작하고 다음 물때부터는 개별적으로 채취한다. 파래는 수익성이 약한데 반해 일이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지 않고 개인별로 채취하게 한다. 툇은 뚝별로 공동채취하고 공동분배한다. 미역은 뚝별로 공동채취 및 공동분배하는데 해녀가 있는 집에서는 남편이나 자녀가 중 1명이 함께 참여하여 2짚을 받는다. 다시마는 특정지역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 한꺼번에 채취하고 미역과 마찬가지로 해녀가 있는 집은 2명이 참여한다. 우뭇가사리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데, 수중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녀들만 작업을 한다.

해삼과 성게, 전복 채취는 해녀들만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주로 전복을 채취하는 데 초점이 있어서 음력 4월 초 조금부터 동짓달까지 작업을 하는데, 이때 중간중간 해삼과 성게를 채취한다. 성게는 음력 5월에 산란을 위해 산란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채취하고, 성게는 음력 4~5월에 집중적으로 채취한다.

〈표 3〉 흑산도 비리마을 물때

음력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물때	첫조금	마지막 조금	무수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첫객끼	마지막 객끼

해조류의 채취와 어패류의 채취는 정반대의 물때를 이용한다. 해조류는 바닷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기간의 썰물 때에 맞춰 작업을 하고, 해녀의 잠수는 조금무렵에 맞춰 작업을 한다. 작업에 유리한 물때는 이와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칙적으로 작업을 할 수만은 없다. 해조류의 경우 채취하자마자

건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바다날씨와 육지날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바다 날씨가 좋아도 흐리거나 비가 오면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해녀들의 무레질은 파도와 바람에 민감해서 조금 때라도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불면 작업하기 힘들고, 날이 청명하고 좋아도 물빛이 투명하지 않으면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

## 2) 마을어장을 공유하는 무레꾼과 어민의 공존방식

현재 서남해의 무레꾼들은 해녀사업을 하는 선주와 연계하여 마을어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 어민들은 잠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레꾼들이 활동하는 구역을 경매로 내놓고, 해녀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일정 기간의 점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대부분 경매와 입찰을 통해 임대하는 빈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무레꾼들은 일종의 ‘전문 잠수업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무레꾼이 어로활동을 하는 구역인 마을어장은 수산업법상 마을어업의 구역으로서 지선어민들이 총유하는 공유자원이다. 그래서 마을어장의 이용과 노동방식, 분배 등은 공평함을 추구한다. 일종의 고정자산인 공유자원의 ‘자원체계’(resource system)는 이후의 사용자들을 위해 보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생산 내지는 공급되어야 한다. 동시에 주기적/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공유자원의 ‘자원단위’(resourceunits)는 그 사용자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sup>41)</sup> 공유자원의 문제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분배는 매우 중요하다. 자원을 체계적이면서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공유자원을 지속시킬 의무나 동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sup>42)</sup>

마을어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남해 무레꾼 중에 제주해녀가 절반 가까이

41) 최종렬·황보명화·정병은, 「‘일반화된 너무나 일반화된’ 호혜성(?)」, 『한국사회학』 40(4)(2006), 50쪽.

42) 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홍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차지하고, 무례꾼의 활동이 빈매 관행 속에서 존재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남해의 무례꾼 실태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고향이 제주인 경우가 44.3%에 달하는 점이다. 통계치가 전체 해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사 대상자들 중에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약하지만, 제주도와의 관련성이나 영향관계에 있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해녀의 활동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을어장이 무례꾼들에 의해 관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해녀들을 중심으로 해녀회나 잠수회 등이 조직되어 마을어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만, 서남해 일대에서는 해녀들만의 독자적인 조직이 발달하지 않고 마을어장 전반을 어촌계나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다. 마을에 무례꾼이 존재하고 그 활동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을어장을 빈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빈매 관행은 제주해녀들의 진출 이후부터 정착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해녀들이 서남해로 들어오면서 초기에 마찰을 일으켰지만, 점차 채취권을 빈매하고 그 권리자가 해녀들을 고용한 형태로 진행된 것이다. 빈매는 서남해지역 일대에서 일반화된 관행으로, 마을에서 해녀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입찰을 통해 빈매를 하면 사업자는 해녀들과 5:5 또는 6:4 등등으로 수익분배를 약속하고 작업을 하는 형태다.

빈매의 관행이 유지되는 것은 서남해지역 어촌에서 무례꾼이 전문화된 개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라고 해서 모든 여인들이 해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닷가 여인들이 해녀가 되어 잠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제주에서 어린아이들이 무자맥질하면서 놀이 반, 물질 반으로 하루를 나다나 자연스레 물질을 익혀서 점차 下軍海女로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43)</sup> 이에 비해 서남해에서는 미역을 따기 위해 2~3미터 정도는 누구나 잠수할 수 있지만, 10여미터를 잠수해서 전복을 따는 것은 전

---

43) 김영돈, 『한국의 해녀』(민속원, 1999), 89쪽.

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다. 그나마 근래에 들어서는 노년층이 증가하여 미역무레질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따라서 서남해에서 무레꾼은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수중어로 전문가’로서 일반 어민들에 비해 우월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되어있다.

문헌기록이든 현재의 상황이든 서남해의 무레꾼이 제주해녀들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무레꾼의 경우 제주해녀에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문헌기록에서 현재의 해녀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해녀를 배태한 사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어민과 무레꾼은 출발점에서부터 공평하지 못하다. 인간의 잠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력하여 얻은 기술의 영역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 수영을 하는 중에 자연스레 잠수능력을 갖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잠수를 못했으나 노력하여 잠수가 가능해진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애써서 노력했지만 잠수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 능력을 습득하는 데 있어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 모두 필요하지만,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잠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과 함께 잠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와 일부 특정한 사람만이 잠수를 하는 사회는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서남해 마을어장에서 무레꾼은 어떤 존재인가? 현재의 마을사람들은 무레꾼을 어떻게 인식할까? 간단히 말하면, 서남해 마을어장에서 무레꾼은 ‘소인국에 나타난 거인’이거나 ‘하천에 나타난 황소개구리’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어민들과 무레꾼들이 마을어장을 공유하면 당연히 무레꾼에 의해 장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을어장에 대한 어느정도의 폐쇄성을 통해 공유자원을 유지하고<sup>44)</sup> 그러한 제한이 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44) 박정석, 『어촌 마을의 공유재산과 어촌계』, 『농촌사회』 11(2)(한국농촌사회학회, 2001).

서남해지역에서 무레꾼과 어민들이 공존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 서남해 지역 사람들은 무레꾼을 상황에 따라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 마을주민들은 무레꾼들이 뜰이나 주비 등의 해조류 채취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잠수를 할 때는 고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중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서남해 사람들이 찾은 것은 소유에 대한 평등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었다.

서남해지역에서는 미역을 서식위치에 따라 날미역과 무레미역으로 구분한다. 날미역은 썰물 때 바위 위로 드러나는 미역을 말하고, 무레미역은 24시간 내내 물속에 잠겨있는 미역을 말한다. 그래서 무레미역은 미역무레질을 할 줄 아는 무레꾼이 채취한다. 흑산도 비리에서는 무레꾼이 있는 집에서 가족 1명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2짚의 몫을 받고<sup>45)</sup>, 가거도에서는 무레미역을 채취하면 무레꾼이 1짚의 몫을 받는다. 가거도의 경우 무레꾼을 내보내지 못했을 경우 ‘애호’라고 하여 반짚의 몫을 받는다.<sup>46)</sup> 그리고 다물도에서는 무레미역을 채취할 때 무레꾼들이 채취한 양을 판단한 후 잠수값을 준다.<sup>47)</sup> 미역을 채취할 때의 무레꾼은 마을사람으로서 공동의 노동에서 마을에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공평하지는 않지만 마을구성원과 같은 몫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무레꾼들이 잠수를 하여 어패류를 채취할 때는 주민들의 입장이 달라진다. 이때의 무레꾼들은 “한 마디로 말하면, 고용된 사람”<sup>48)</sup>으로 인식된다. 마을 어장에 있는 전복이나 해삼, 성게는 마을의 공유자원이고, 무레꾼은 개인사업자처럼 마을과 고용관계 속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흑산도 비리와 홍도에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獨商’이라고 하여 매년 마을어장의 전복과 성게, 해삼을 빈매하였다. 홍도에서 독상은 음력 3월부터 6월까지 무레

45) 2014년 5월 7일 신안군 흑산면 비리 해녀물질 현장조사.

46) 고광민, 『흑산군도 사람들의 삶과 도구』(민속원, 2012), 125쪽; 이유리, 『가거도의 갯발공동체와 무레꾼 연구』(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7) 전재경, 『어촌사회의 법의식』(한국법제연구원, 1998), 121쪽.

48) 2014년 5월 7일 신안군 흑산면 비리 무레꾼물질 현장조사.

꾼들이 채취하는 전복과 성게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래서 무레꾼들은 이때 채취하는 어패류 전체를 독상에게만 팔았고, 6월 말이 되면 계약이 끝나 ‘난상’이 되어 무레꾼들이 마음대로 채취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였다.<sup>49)</sup>

흑산도 비리의 경우 15년 전까지 독상 제도를 운영하다가 그 후 10년 동안은 무레꾼들과 직접 계약을 하였고, 최근 5년 동안은 마을에서 자율관리어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마을무레꾼 7명이 음력 4월부터 11월까지 총 17회 잠수를 하여 85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이 중에서 4000만원을 무레꾼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은 마을 기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대부분은 마을주민들 전체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sup>50)</sup>

비리마을의 사례에서 마을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금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을 결산을 할 때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데 무레꾼들 또한 마을주민의 자격으로 배당금을 받는다. 즉, 무레꾼들은 작업을 할 때 사공비를 제외한 5:5 정도의 수익금을 받는데, 마을결산을 하면서 또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마을에서 무레꾼을 바라볼 때 마을어장에서는 ‘대가를 주고 고용하는 무레꾼’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동일한 마을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비단 흑산도만의 사례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무레꾼들이 없어지면 제주해녀나 스쿠버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마을어장에서 무레꾼들을 대하는 이중적 인식은 일면 부당한 점이 있다. 마을 주민들 대다수가 무레꾼이 아닌 상황에서 소수의 무레꾼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51)</sup> 그러나 무임승차의 문제는 공유의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무레꾼들도 조금 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마을에 봉사하

49) 전제경, 『어촌사회의 법의식』(한국법제연구원, 1998), 142~145쪽.

50) 2014년 5월 7일 신안군 흑산면 비리 무레꾼 물질 현장조사.

51) 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홍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고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레꾼과 어민이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필로스 관계를 이루면서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인 것 같다.<sup>52)</sup> 현 상황에서 무레꾼과 일반 어민은 모두 서로 불공평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상황 자체를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 6. 맺음말

서남해의 무레꾼은 제주해녀들처럼 해녀회나 줌수회 등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 지선에서 마을무레꾼들이 활동하지만 무레꾼만의 독자적인 조직이나 신앙, 의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서남해에서 무레꾼 활동이 가장 왕성한 홍도에서도 포장마차의 운영을 위한 모임 속에서 해녀 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수준이다. 최근 가거도 무레꾼을 연구한 사례에서도 갯발공동체 속에서 무레꾼의 활동을 주목할 뿐 무레꾼조직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sup>53)</sup>, 전남의 무레꾼 실태조사 자료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레꾼 모임이 조직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sup>54)</sup> 그래서 서남해 무레꾼 연구에 있어서 ‘무레꾼의 조직과 독자적인 면모가 두드러지지 않는 점’ 그 자체가 서남해 무레꾼의 정체성과 그 실재를 들여다보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서남해지역 무레꾼의 과거 모습을 추적하고, 제주해녀와의 영향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적응해 온 과정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마을 어장에서 무레꾼과 일반 주민들의 관계를 주목하여 그 위상에 대해 논의하였

52) 최종렬·황보명화·정병은, 「‘일반화된 너무나 일반화된’ 호혜성(?)」, 『한국사회학』 40(4)(2006), 94쪽.

53) 이유리, 「가거도 갯발공동체와 무레꾼 연구」(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가거도와 만재도의 갯발공동체와 무레꾼 연구」, 『남도민속연구』 26(남도민속학회, 2013).

54) 문옥희·이이승·서은정, 『전남지역 해녀실태조사』(전남여성플라자, 2013), 73쪽.



다. 그래서 과거의 기록과 상황을 검토하고, 제주해녀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온 과정을 주목하였다. 서남해의 무례꾼들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는 제주해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선어민과 해녀들이 마을어장을 공유하는 현재의 모습을 주목하였다.

먼저 조선시대의 기록을 통해 서남해의 무례꾼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제주도 출신이면서 바닷일을 전문으로 하는 포작과 포녀에 대한 언급이 많다. 이들은 배를 타고 유랑하듯이 서남해의 섬과 해안을 떠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서남해 무례꾼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으로는 1791년에 기록된 <금당도선유기>를 통해 완도의 평일도 무례꾼들이 전복 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서남해에 남자무례꾼이 존재했음을 구체적으로 주목하였다. 서남해지역에서 남자무례꾼이 활동했었던 것은 풍문으로 회자되는 수준이었기에 남자무례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최근 필자가 완도 평일도에서 남자무례꾼을 했던 노인들을 만나 좀 더 구체적인 활동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평일도의 남자무례꾼들은 70~80대 노인들이 마지막 세대로서 1970년대 고무옷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지들과 같이 무례질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무례질의 방법이나 도구 등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남자무례꾼의 활동은 이외에도 흑산군도에서 흑산도와 가거도, 태도 등지에서도 확인된다.

세 번째는 서남해지역 무례꾼들이 제주해녀의 영향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점을 주목하였다. 서남해의 주민들은 물과 친숙해서 어려서부터 수영을 하면서 놀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노력을 통해 물속의 무례미역을 채취할 정도의 잠수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무례질을 하는 것과 전문적인 무례꾼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서남해지역에는 전문적인 무례꾼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었고, 무례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이거나 전문적인 무례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에 제주해녀들이 들어오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전문적인 무례꾼들이 형성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 제주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등장하면 서부터 남자무래꾼들은 자연스레 활동을 중단하였고, 여자무래꾼들은 소수화 되어 좀 더 전문화된 직업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는 마을어장에서 활동하는 무래꾼들의 현황과 현재적 위상을 파악하였다. 특히 무래꾼들이 상황에 따라 ‘주민’과 ‘무래꾼’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무래꾼이 활동하는 공간은 마을어장인데 이곳은 마을주민과 무래꾼이 함께 생산활동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해조류의 경우 대부분 마을주민들이 공동채취 및 분배를 하고, 수중의 해산물은 마을에서 해녀사업자에게 빈매를 한다. 제주도의 경우 해녀들이 마을어장 전반을 관리하고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어로활동을 전담하는데, 서남해에서는 마을에 무래꾼들이 있더라도 빈매를 하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면 부당해보일 수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래꾼들이 마을주민으로서 공존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을어장은 주민들의 공유재산인데, 마을사람 대부분이 무래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무래꾼들의 수익을 보전해주면서 주민들도 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서남해 무래꾼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한 계단 올라섰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서남해의 무래꾼은 해녀 연구에서 소외되어왔기 때문에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 무래꾼 자체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지만, 무래꾼이 활동하는 마을어장의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사회의 변동과 함께 무래꾼을 주목해야 한다. 서남해는 마을어장에서 펼쳐지는 어로활동이 복잡다양하고 무래꾼의 활동도 그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촌사회 속에서 무래꾼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 ■ 참고문헌

### 1. 문헌자료 및 신문기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비변사등록』

『성종실록』

김약행, 『仙華遺稿』, 牧民, 2005.

위백규, 『존재전서』, 경인출판사, 1974.

『동아일보』, 1928년 5월 19일자.

### 2. 논문 및 단행본

강권용·권미선, 『제주 해녀옷 이야기』, 해녀박물관, 2012, 30~34쪽.

강영삼, 『조선시대 전복(全腹) 진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고광민, 『平日島 “무례꾼”(海女)들의 組織과 技術』, 『도섬문화』 10,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2.

\_\_\_\_\_, 『한국어촌사회 공유지의 소유구조』, 『한국 어촌사회 공유자원』, 인천학연구원, 2011.

\_\_\_\_\_, 『흑산군도 사람들의 삶과 도구』, 민속원, 2012.

김나영, 『조선 후기 제주지역 포작의 존재양태』, 『탐라문화』 3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제21집, 부경역사연구소, 2007.

김수희,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 『탐라문화』 33,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김창민, 『평등이념과 개인의 전략: 흑산도의 바위 미역 채취에 관한 민속지』, 『지방사와 지방문화』 5(1), 2002.

문옥희·이아승·서은정, 『전남지역 해녀실태조사』, 전남여성플라자, 2013.

박정석, 『어촌 마을의 공유재산과 어촌계』, 『농촌사회』 11(2), 한국농촌사회학회, 2001.

박찬식, 『제주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역사민속학회, 2004.

송기태, 『어경(漁耕)의 시대, 바다 경작의 단계와 전망』, 『민속연구』 제25집,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2.

\_\_\_\_\_, 『조도군도 관매도의 미역밭 경작과 생업전략』, 『남도민속연구』 26, 남도민속학회, 2013.

안미정, 『해방 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사적 고찰』, 『탐라문화』 3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엘리너 오스트롬 저, 윤흥근·안도경 역,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이유리, 『가거도와 만계도의 갯밭공동체와 무례꾼 연구』, 『남도민속연구』 26, 남도민속학회, 2013.

- 이유리, 「가거도의 갯밭공동체와 무레꾼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전재경, 『어촌사회의 법의식』, 한국법제연구원, 1998.
- 제주도, 『제주의 해녀』, 1997.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의 민속』 IV (의생활·식생활·주생활), 제주도, 1993.
- 조경만, 「흑산 사람들의 삶과 民間信仰 : 生計活動·堂祭·水産儀禮의 現樣相」, 『도서문화』 6,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소, 1988.
- 좌혜경, 「제주 출가 해녀의 현지실태와 대응」, 『영주어문』 10, 영주어문학회, 2005.
- 최종렬·황보명화·정병은, 「‘일반화된 너무나 일반화된’ 호혜성(?)」, 『한국사회학』 40(4), 2006.

# The Transition and Continuity of Mureggun Tradition in Korea's Southwestern Sea Region

Song, Ki-Ta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hanyeo (female divers) of Korea's southwestern sea region by investigating their history and current activities. In the southwestern sea area, those who harvest seafood from below the surface of the water are called 'mureggun'. Both men and women used to dive in the past, but male divers have gradually disappeared since Jeju hanyeo were introduced and the name of 'hanyeo' has begun to be generally used.

In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the words 'pojak' and 'ponyeo' can be easily found, which refer to people who are from Jeju Island and professionally fish. They were assumed to sail around the islands and coastal areas of Korea's southwestern sea region and have a correlation with current muregguns in a broad sense. In addition, there are detail records of the activities of hanyeo written by someone who went sightseeing throughout in Korea's southwestern sea region in 1791.

The unusual thing of hanyeo tradition in Korea's southwestern sea region is the existence of male muregguns. According to my survey results, it was found that male muregguns existed in the southwestern sea regions and they dived with female muregguns. The activities of male muregguns ceased

---

\* Mokpo National University

about forty to fifty years ago and only a few memories remain, but their activities can be confirmed in many areas of Korea's southwestern sea region.

People in Korea's southwestern sea region were familiar with water and swam for fun dating back to their childhood. Naturally, they could acquire diving skills for gathering seaweed with little effort.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diving and being a professional hanyeo. The southwestern sea regions didn't need professional hanyeo. There were hanyeo there at that time, but it is assumed that there were no professional hanyeo. In these circumstances, Jeju hanyeo were introduc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as a result, professional hanyeo were assumed to appear. Since the 1970s when Jeju hanyeo began to dive in rubber suits, male muregguns naturally stopped their activities and female muregguns began to emerge with a few professional divers.

Currently, hanyeo are fishing in slight conflict with local residents. They usually fish in local fisheries where hanyeo and local residents fish together. In case of algae, local residents gather and distribute them together. As for other marine products, the towns and villages sell the rights to collect marine product to hanyeo. The practice of selling the rights to collect marine products to hanyeo are still maintained in the southwestern sea regions, whereas hanyeo generally manage local fisheries on Jeju Island. It might seem unfair, but in a broader sense, it is a way for effective co-existence between hanyeo and local residents. In short, since local fisheries are common assets and most local residents are not able to become hanyeo, they have chosen this way of sharing profits together, and in turn, preserving the profits of hanyeo.

[Keywords] Hanyeo, Mureggun, Male mureggun, Local fisheries, Jiseon Fishery,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Resource sharing, Diving

이 논문은 2015년 1월 5일 투고되어  
2015년 1월 24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2월 17일 수정 · 완료하여  
2015년 2월 20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